

광주 남구의회 원 구성 여진...특위 결성 '지지부진'

후반기 개회 3개월 넘도록 윤리특위 못꾸려...의원간 갈등 여파 오는 25일 정례회 앞두고 '집행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 목소리

광주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 의장단 선출 때 투표 출된 내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달 말 예정된 제308회 정례회에서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작동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전·후반기 의회 개원 시 새롭게 구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남구의회는 광주지역 타 기초

의회와 달리 후반기 들어 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7월4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위원장을 뽑고 각 위원 구성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회의는 파행됐고 의혹 대상자들은 수사 기관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이를 지켜본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등이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자 지난 7월

15일 남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이후 남구의회는 7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렸으나 윤리특위는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인데, 이를 두고 '예산심사'라는 고유 업무와 '권한' 때문에 예결위는 꾸렸으나 구성원에 한해 작동하는 윤리특위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선임 전

까지 전임 위원이 재임할 수 있어 부재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리특위 안건 미상정'이 지난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 현 남구청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장과'와 나머지 '반대파'가 섞여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으나, 진영 간 갈등으로 안건 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를 번번이 채우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선임 전

까지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의정 활동이 예정돼 있으나, 이 같은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남구의회 의장은 "의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어 윤리특위 구성 등의 견제 출력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모든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휴향 기간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여수시 패소

항소심 법원 "코로나는 재난...3억6천여만원 아닌 9천여만원만 부과"

여수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대해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0일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여수시가 원고

에게 사용료로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기존 여수시가 부과한 사용료는 3억6천여만원이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향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그런데도 여수시가 휴향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2차례로 나눠 부과하자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향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

여수 호텔 사우나 화재...5명 연기 흡입

여수 한 호텔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7분께 여수시 신일동 한 호텔

의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9분께 화재를 완전했다. 이 불로 호텔 직원과 손님 등 5명이

연기를 마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를 피해 호텔 투숙객과 음식점 고객 등 99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막말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형뉴스

31사단, 군인 사칭 범죄 주의 당부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지역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1사단은 "올해 사단 군인 간부를 사칭하는 주문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고 속이는 보이 스피싱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국정농단 규탄한다”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다들 여민주당 광주시당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광주 수거 차량에 참변 유가족 '법 개정' 촉구 청원

최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생의 유가족이 단지 내 사고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공개 신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어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달 30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조카를 잃은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

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사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공개 기준인 100명이 찬성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후 귀가하던 초등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